

산업보건의 새로운 신뢰 기준을 말하다



Brief. 1

대한산업보건협회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전 지부 S등급 달성

2025년 7월 4일,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5년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 전국 19개 지역본부(센터)가 모두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협회가 보건관리 제도 설계자이자 운영자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현장 중심·스마트 기술·표준화된 품질관리가 결합한 결과라는 평가다. 민간재해예방기관 137개소 중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14곳이다. 그중 협회는 전국 단위로 전 지부가 S등급을 기록하며 '전국 표준'의 가치를 입증했다.

글 대외홍보국 사진 김재이



대한민국 보건관리 제도의 설계자에서 '표준'으로

보건관리제도는 사업주가 보건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원하고 지도하는 제도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노동자의 건강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는 'S(매우우수)'부터 'D(불량)'까지 5단계 절대평가 체계로 진행되며, 동일 관할 지역에서는 대표 기관 1곳에 등급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에 있는 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와 충남센터는 대전세종지역본부가 대표로 등급을 받는다. 협회는 지역본부 6곳(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이 'S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6개 광역 단위 고용노동청에 속한 협회 19개 지역본부(센터) 모두가 'S등급'을 받았다는 의미다.

1947년 설립된 협회는 우리나라 보건관리제도의 설계자이자 중심이었다. 1960년대부터공단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보건센터를 설립해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1972년 마산수출자유지역 최초 집단보건관리 시행 등으로 보건관리 위탁제도의 효시를 마련했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보건관리대행제도가 도입되자, 협회는 제도 정착을 위해 1993년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를 발족했다. 협회가 중심이 된 협의회에서는 보건관리위탁 표준화, 산업보건 기술정보 보급, 제도개선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평가 등급 체계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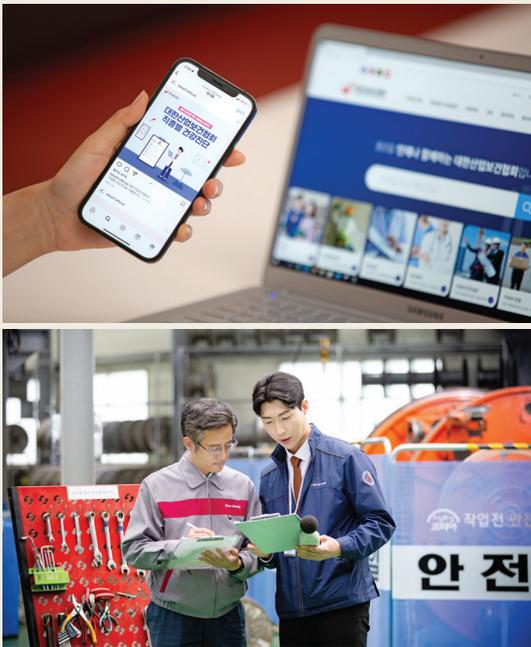
서비스 전문성, 법령 준수, 운영 역량 등



S등급

'매우우수' 기관에게 부여, 전국 평균 10~15% 이내

대한산업보건협회는 AI, IoT, 센서,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산업보건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의견수렴에서 개선으로,
고객중심 보건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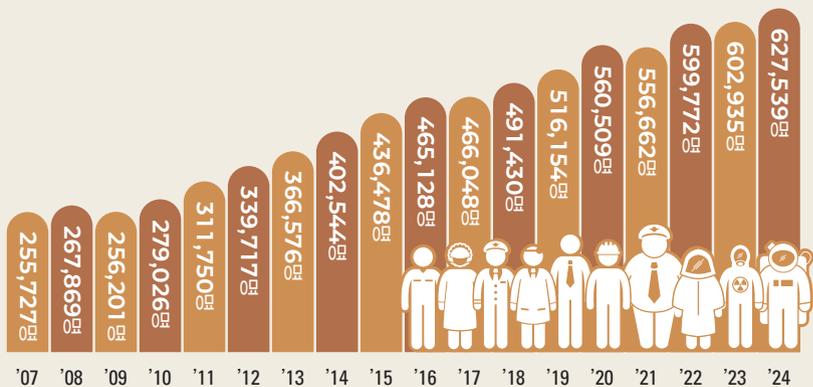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끊임없는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협회는 해마다 11~12월 보건관리위탁사업장 업무 담당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업무 개선에 반영한다. 보건관리 지도 및 조언, 업무 수행 및 보고서 설명, 협회 직원의 태도, 직종별 업무, 보건교육자료 등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체 관리사업장 중 23.9%에 해당하는 1,706명이 조사에 참여해 보건관리 지도, 보고서 설명, 직원 태도, 보건교육자료 등에 대해 평가했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된 방대한 보건관리 데이터와 노하우는 협회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2016년 5,022곳이던 협회 위탁사업장 수는 2025년 5월 기준 7,079곳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국 보건관리 위탁 사업장(25,398곳)의 약 27.9%에 해당한다.

스마트 보건관리로의
발빠른 전환

보건관리 분야의 새로운 흐름을 살피고, 한발 앞서 대응에 나서려는 점도 협회의 장점이다. 협회는 2007년에는 보건

연도별 위탁노동자 수

2024년
위탁 노동자 수
627,539명



관리전문기관 최초로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사업장 보건 관리에 적용했다. 2020년대 들어서는 AI, IoT, 센서,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산업보건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단순한 장비 도입을 넘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체 전산프로그램은 임직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 평가를 통합 관리한다. 개인별 건강 결과 리포트와 맞춤형 건강교육 콘텐츠를 카카오톡으로 제공하고, 기업 전체 건강 통계와 분석자료는 보건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직무스트레스 평가는 모바일 설문과 뇌파검사를 연동해 고품질의 빠른 결과를 산출하며, 측정 결과에 따른 치유 및 훈련 프로그램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AI 기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실시간 신체 각도 정보를 자동 추출해 작업 행위를 정밀 분석하고, 차세대 동작 분석 의료를 활용한 맞춤형 스트레칭 및 재활운동을 제안하는 사후관리 솔루션으로 연결된다. 스마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은 4만 중 이상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물질 평가를 지원한다. 화학물질 파악부터 현장평가, 위험성 평가, 감소 대책 수립, 보고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프로그램화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 같은 스마트 산업보건의 예측·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산업보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별화된 맞춤 서비스와 스마트 기술로 신뢰받는 산업보건 기준 확립

Brief. 2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전 지부 S등급 달성
현장 실무자 특별 좌담회



왼쪽부터 김미경 서울보건관리국장, 김유희 경기보건관리국장, 김효준 사업관리본부장, 송래영 본부보건관리국장, 이미선 충북보건관리국장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에서 전국 19개 지역본부가 모두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한 성과를 기념해,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그 배경과 의미를 돌아보는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 실무자들은 철저한 준비, 현장 중심의 소통,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이 이번 성과를 이끈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송래영 국장

본부보건관리국



이미선 국장

충북보건관리국



Q1 —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송래영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이 산업보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산업체의 보건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진행하며, S(매우우수)부터 D(불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평가 항목은 서비스의 전문성, 체계성,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 이번 평가에서 협회가 '전국 19개 지역본부 S등급'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선 올해 대한산업보건협회 19개 전 지역본부(센터)가 모두 'S등급'을 획득하며 산업보건 서비스 신뢰 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별 우수 지표를 넘어서, 전국 단위로 동일한 품질 기준과 서비스 체계를 갖춘 협회의 체계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S등급'은 매우우수 기관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으로, 산업보건 관리 역량과 현장 실행력을 종합 평가해 부여됩니다. 이번 결과는 협회 전 직원의 헌신과 전문성이 집약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유희 국장

경기보건관리국

**Q3 — 경기지역본부는
최초 S등급 달성 기관이었죠?**

김유희 맞습니다. 저희 경기지역본부는 2023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함께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대응 노하우, 문서관

리, 실적 데이터 구축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후 다른 지역본부와도 적극 공유하며 협회의 품질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Q4 — S등급을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유희 비결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방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실무자 교육 강화, 법령 기준에 맞는 문서 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었죠. 특히 현장 중심의 소통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업장 방문 시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보건관리자의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Q5 — 협회 차원에서 관리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송래영 평가를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적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 모니터링, 자체 모의평가, 본부와 지역본부 간 관리 매뉴얼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 피드백이 순환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체크리스트와 양식은 전 지부에 즉시 배포하고, 사용 교육도 병행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했습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Q6 — 최근 민간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사업장이 있는데, 평가 대응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김미경 서울은 업종과 사업장 규모, 운영방식이 매우 다양해 표준화된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유연성’이라는 전략 아래, 업종별 보건관리 가이드 라인을 세분화해 운영했습니다. 예를 들어 IT 기업에는 VDT 증후군 예방과 휴식 설계를 중심으로, 유통·판매 업종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중심으로, 법·의원 및 요양시설 등 교대 근무자의 건강관리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점검 결과, 보건지도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연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



김미경 국장
서울보건관리국



“ 신뢰받는 산업보건의 기준 만들어 나갈 것 ”

Mini Interview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관리본부
김효준 본부장

협회의 강점은 전통적 건강 상담을 넘어 사업장 맞춤형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전국 19개 보건관리 기관이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표준화해 제공한 것도 높은 평가 요인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요구에 맞춰 다양하고 실질적인 스마트 보건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직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이번 S등급 달성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본부는 직원들이 더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두에게 환영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신뢰받는 산업보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